



미 증시, 파월 의장 매파 발언 등으로 하락 전환

미국 증시 리뷰

9 일(목) 미국 증시는 주중 연이은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30 년물 국채 입찰 부진,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약세 마감(다우 -0.7%, S&P500 -0.8%, 나스닥 -0.9%). 업종별로는 헬스케어(-2.1%), 경기소비재(-1.8%), 부동산(-1.5%), 유틸리티(-1.4%) 등 전업종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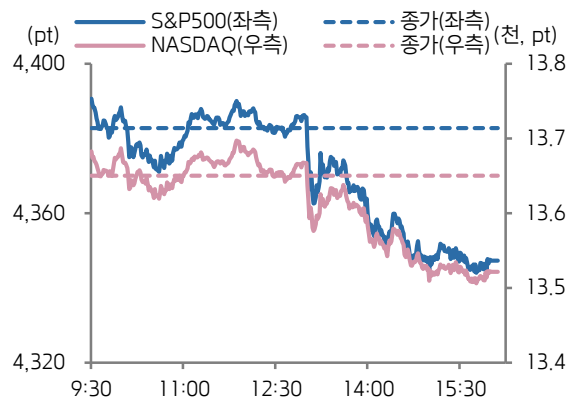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IMF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2%대로 하락시킬 정도의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추가 긴축이 적절할 경우 연준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또 연준은 너무 높은 수준의 긴축을 하길 원치 않지만, 가장 큰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만큼, 추가 인상의 필요성 여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 시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발언. 또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조사를 해보겠다고 언급.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가시화 되기전까지는 마이너스금리와 YCC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 아울러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 임금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는데 적극적인 만큼, 이를 보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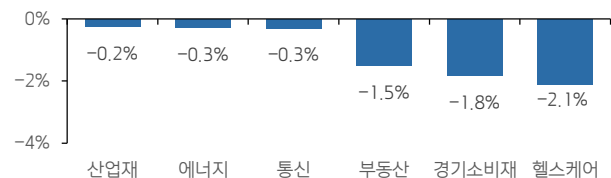
중국의 10 월 생산자물가는 -2.6%(YoY)로 전월(-2.5%)에 비해 둔화됐으나, 컨센(-2.7%)는 소폭 상회. 10 월 소비자물가는 -0.2%(YoY)로 전월(0.0%) 및 컨센(-0.1%)를 모두 하회. 최근 중국 정부는 수요 회복, 경제 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10 월 인플레 지표 상 소비 경기를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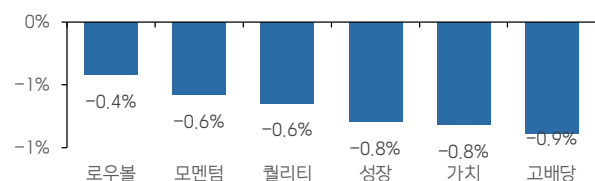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27.08	+0.23%	USD/KRW	1,309.83	-0.04%
코스피 200	325.29	+0.4%	달러 지수	105.90	+0.29%
코스닥	802.87	-1%	EUR/USD	1.07	-0.38%
코스닥 150	1,279.72	-0.89%	USD/CNH	7.30	+0.16%
S&P500	4,347.35	-0.81%	USD/JPY	151.36	+0.25%
NASDAQ	13,521.45	-0.94%	채권시장		
다우	33,891.94	-0.65%	국고채 3년	3.839	-3.2bp
VIX	15.29	+5.81%	국고채 10년	3.935	-9.5bp
러셀 2000	1,687.24	-1.57%	미국 국채 2년	5.024	+9.2bp
필라. 반도체	3,452.34	-0.59%	미국 국채 10년	4.630	+13.8bp
다우 운송	14,266.24	-1.04%	미국 국채 30년	4.773	+15.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29.20	+1.21%	WTI	75.54	+0.28%
MSCI 전세계 지수	664.43	+0%	브렌트유	79.87	+0.41%
MSCI DM 지수	2,888.41	+0.04%	금	1963.7	+0.3%
MSCI EM 지수	957.91	-0.29%	은	22.71	-0.1%
MSCI 한국 ETF	59.87	-0.99%	구리	363.3	-0.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5.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공매도 금지 여진 지속 가능성 2. 최근 극단적인 주가 변화를 연출하고 있는 이차전지주들을 둘러싼 수급 공방 심화 여부 3. 미국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성장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어제 10 년물 금리는 4.6%대까지 재차 상승하며 빅테크 중심으로 약세. 이는 30 년물 입찰 부진, 최근 금리 하향 안정화를 의식한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기인.

이번주 진행된 국채 입찰에서 장기물로 갈수록 입찰 부진했다는 점 봤을 때 경기 재가속 우려 완화를 넘어 침체에 대한 경계심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0 년만기 모기지 금리는 7.6%까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정체 지속, 3 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 연체액 10 년만에 최고 수준인 177 억 달러 상회 등으로 미국 지방은행 ETF 약세.

다음주 14 일 CPI(YOY 예상 3.3%, 전월 3.7%), 15 일 소매판매(MOM 예상 -0.3%, 전월 0.7%), 17 일 예산안 협상 중요. 이번주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 랠리 이후 매크로 민감도 재상승하는 구간.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하며 하방은 지지되지만, 성장주의 추세전환 및 V자 반등보다는 9 월 수준까지 완만한 주가 복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유지.

9 일(목) 국내증시는 미국채 금리 진정, 유가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혼조세 (KOSPI +0.23%, KOSDAQ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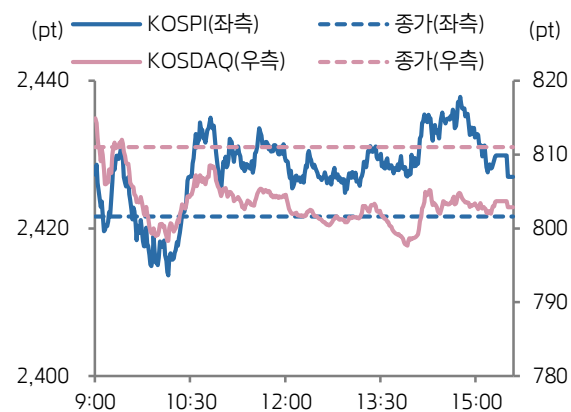
금일에는 금리 재상승, 다음주 경제지표 및 예산안 협상 이벤트 앞둔 경계심리 유입되며 차익실현 압력 가해질 것으로 예상.

공매도 금지 여파 지속되며 이차전지 업종은 3 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그 외에 소프트웨어, 유통 등 낙폭과대 및 호실적 발표한 업종 중심으로 반등하는 개별종목 장세 흐름. 로블록스 주가 급등 및 전방산업 업황 개선 조짐에도 전일 펠어비스, 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주는 부진한 실적에 주가 약세. 결국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으며 21 일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개별종목 장세 흐름 예상.

다만 이차전지 관련 수급 불확실성 지속. 다음주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리에 더해 국내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 월 17 일 상장 이슈 존재. 8~9 일 일반 청약결과 증거금은 3.7 조원으로 집계되었고 다음주 상장 전후로 해당 증거금 물량 출회될 예정. 정부는 공매도 전면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납부대상 대주주 요건을 10 억원에서 20 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 연내 확정될 시 최근 5 년간 앞당겨지고 있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 존재. 올해 일부 이차전지주 급등으로 9~10 월 중 일부 물량이 출회되었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연말 개인자금 변동성 확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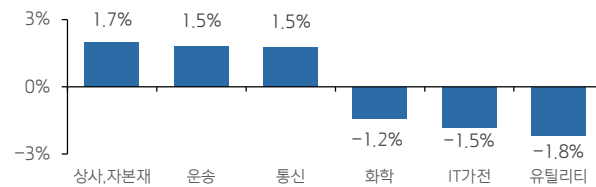
추가로 11 일 중국 최대 세일 행사인 광군절 예정. 지난 9 월 부동산 완화정책 이후 확인된 10 월 CPI -0.2% (예상 -0.1%, 9 월 0.0%), PPI -2.6% (예상 -2.7%, 9 월 -2.5%) 기록하며 부진. 이미 낮아진 중국 경기 기대감, 다음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아마존 지난 3 분기 호실적 등 감안시 국내 화장품, 유통 등 소비재 업종 내 이번주 반등장에서 소외되었던 기업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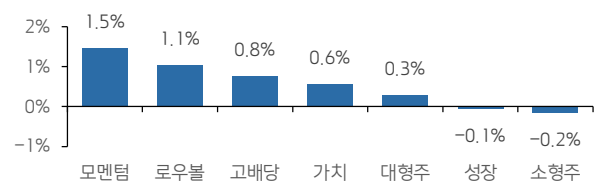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div> Compliance Notice </div> <div>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div>
<div> 고지사항 </div> <div>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랄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div>